

요진건설산업 종합건설 실적 도내 1위

지난해 기성실적 4,390억원
2위와 3천억 차이 단독 선두
전문건설은 대련건설이 1위

원주 요진건설산업(주)이 도내 종합건설업체 중 지난해 기성실적 1위를 차지했다. 전문건설업체 중에는 화천 (주)대련건설이 1위였다.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의 지난해 기성실적은 4,390억 2,500만원으로 나왔다. 이어 원주에 스지건설, 정선 대림종합건설, 원주

◇2016년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 기성실적

(단위:백만원)

순위	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업체명	기성실적	업체명	기성실적
1	요진건설산업(주)	439,025	(주)대련건설	71,129
2	에스지건설(주)	118,154	평창건설(주)	36,010
3	대림종합건설(주)	70,523	(주)삼우아이엠씨	26,384
4	정상종합건설(주)	62,769	(주)강산	20,647
5	현대아산(주)	58,798	(주)서하	17,530

<자료:대한건설협회 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

정상종합건설, 고성 현대아산 등의 순이었다. 종합건설업체 490개사의 지난해 전체 기성실적은 전년 대비 2.08% 늘어난 2조8,393억2,600만원

을 기록했다. 전문건설업체 중에는 화천 대련건설이 711억2,900만원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원주 평창건설, 춘천 삼우아이엠씨, 원주 강산,

원주 서하 등이 뒤를 이었다. 도내 전문건설업체 1,911개사의 지난해 전체 기성실적은 1조3,296억8,500만원으로 전년보다 13.9%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특수와 시·군별 개발 호재로 업계 전체의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도내 건설업은 공공 부문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리스크가 크다. 지속적으로 건설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kwnews.co.kr

요진건설 종합건설 시공능력 '1위'

작년 4390억원 기록 14년째 선두
건설협회 도회 2016 시행력 평가

원주 요진건설산업이 종합건설 시공능력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2016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원주 요진건설산업이 4390억원을 기록, 종합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주 요진건설산업은 14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2위는 원주 에스지건설(1181억원), 3위 정선대림종합건설(705억원), 4위 원주정상종합건설(627억원), 5위 고성현대아산(587억원) 순이다. 지난해 총 공사 계약 금액은 2조4716억원으로 전년

■ 2016년도 기성액 순위

(단위:백만원)

순위	2016년도	
	업체명	기성액
1	요진건설산업	439,025
2	에스지건설	118,154
3	대림종합건설	70,523
4	정상종합건설	62,769
5	현대아산	58,798

(2조9079억원)보다 15% 하락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의 경우, 1조1524억원으로 전년(1조526억원)보다 9.47% 상승한 반면 건축은 1조1934억원으로 전년(1조7463억원)보다 무려 31% 하락했다. 한편 지난해 실적신고 대상 도내 업체수는 494곳이다.

안은복